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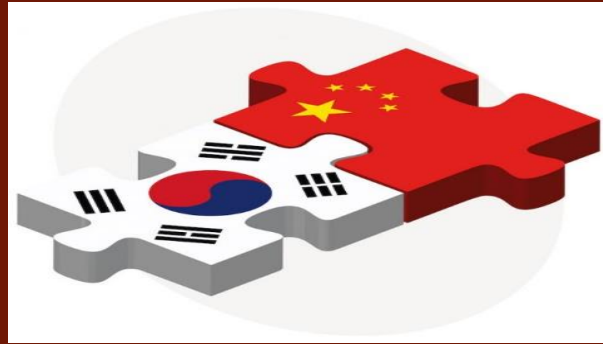
한중수교 25주년 성과와 의미

이희옥 교수
성균관대학교



／ 01 ／

동아시아질서의 변화와 한중관계



한중관계의 안보환경

'위대한 중국'과 '위대한 미국'

오늘의 국제질서: 불확실성, 불안정성, 불명확성, 불예측성 = 실서(失序)

세계질서 2.0의 등장(Richard Haass)

- 세계질서 1.0: 주권국가의 독립적 존재와 자율성에 기초한 시스템
- 세계질서 2.0: 주권적 의무(sovereign obligation)를 포함한 새로운 규범과 메커니즘 요구

중국: 아시아 운명공동체

- 하드파워일수록 미-중 갈등 심화, 소프트파워일수록 협력 강화
- 중국 영토에 가까울수록 미-중 갈등 심화, 중국영토에서 멀수록 협력 강화

지정학의 부활(강대국정치): 개별국가 안보자율성(Security Autonomy)강화
대중민족주의 발흥, 중상주의적 국가이익 추구

구조 → 주요행위자



주요행위자 → 구조

중국외교의 새로운 방향모색



19차 당대회와 신형국제관계

- 신형대국외교와 신형국제관계
- 규범, 제도, 모델 경쟁
- 분발유위(奮發有爲)

아시아에서 세계전략의 교두보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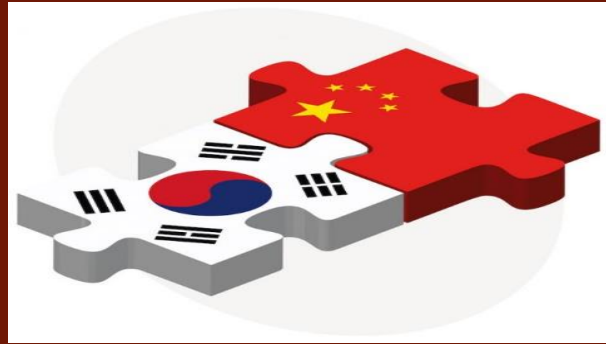
- 아시아 운명공동체
- AIIB, 일대일로, RCEP
- 친성혜용(親誠惠容)

동아시아 단층선(Fault Lines)관리

- 한반도문제: 북핵, 지역동맹
- 중일관계: 역사-영토, 지역전략구도
- 양안: 독립문제, 핵심이익의 고수
- 남중국해: 영토분쟁, 미중관계

／ 02 ／

한중관계 성과



한중관계 발전과정

형식	시점	중국의 관심사	한국의 관심사	양국정부
선린우호관계	1992	개혁개방 경제협력	북방정책 경제협력	노태우-장쩌민정부
협력동반자관계	1998	지역안보 경제협력	남북관계 경제협력	김대중-장쩌민 정부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	2003	6자회담 경제협력	북핵문제 경제협력	노무현-후진타오정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2008	한미동맹 한중FTA	북한문제 한중FTA	이명박-후진타오정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2013	북핵문제 인문유대	통일문제 인문유대	박근혜-시진핑정부
전면적(?)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2017 (?)	북핵문제 한미동맹 사드배치	북핵문제 남북관계 사드배치	문재인-시진핑정부

* 유사한 시기에 수교하거나 복교한 양자관계 중에서 가장 모범적 관계로 발전

1992년 한중수교의 의미

不忘初心 牢记使命



한국정부의 북방정책

한국-대만관계



중국개혁개방의 재개

중국-북한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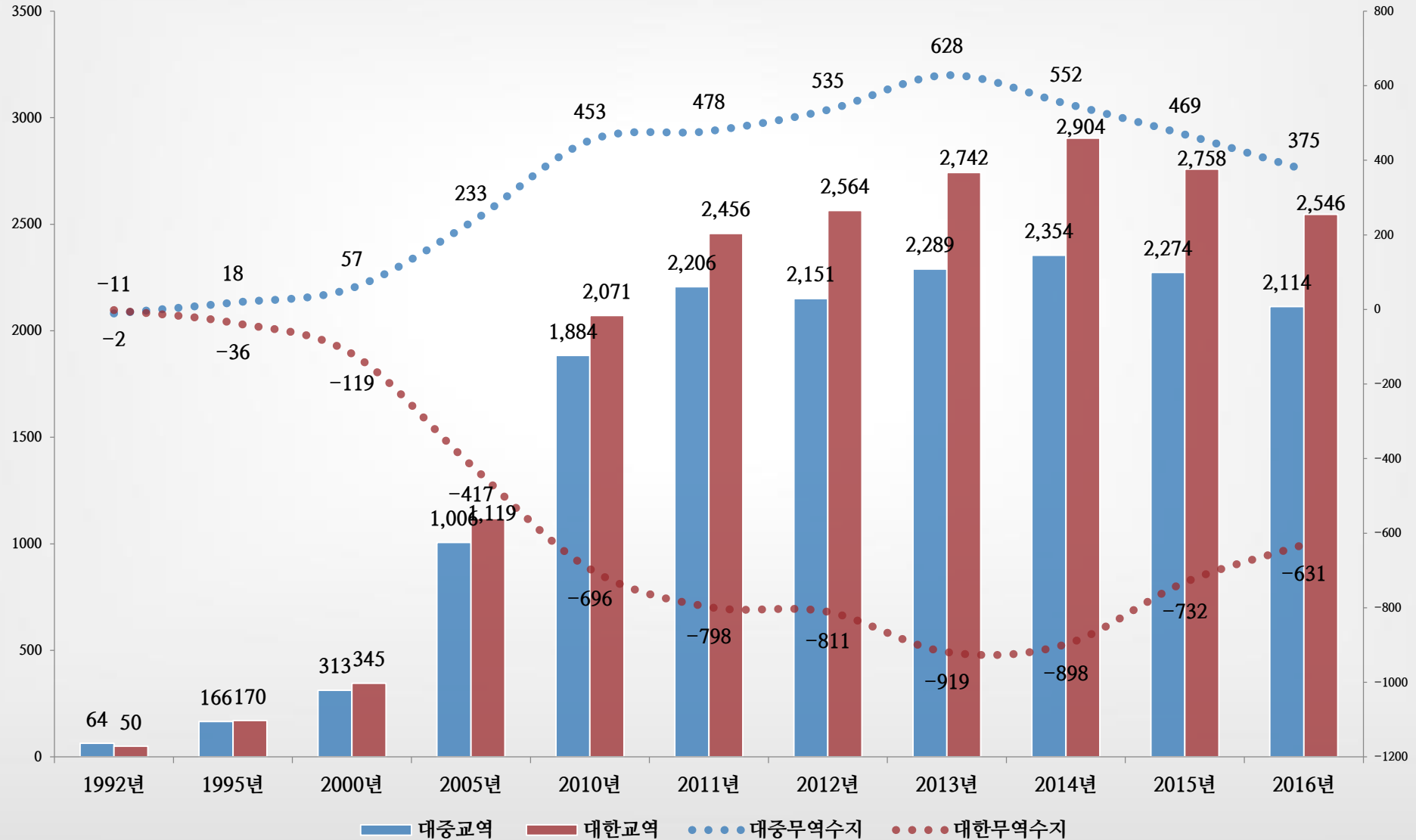
유엔헌장 원칙, 주권 등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공존의 원칙에 입각해 항구적인 선린우호관계 발전

한반도 정세완화와 안정,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

(중국은) 조기에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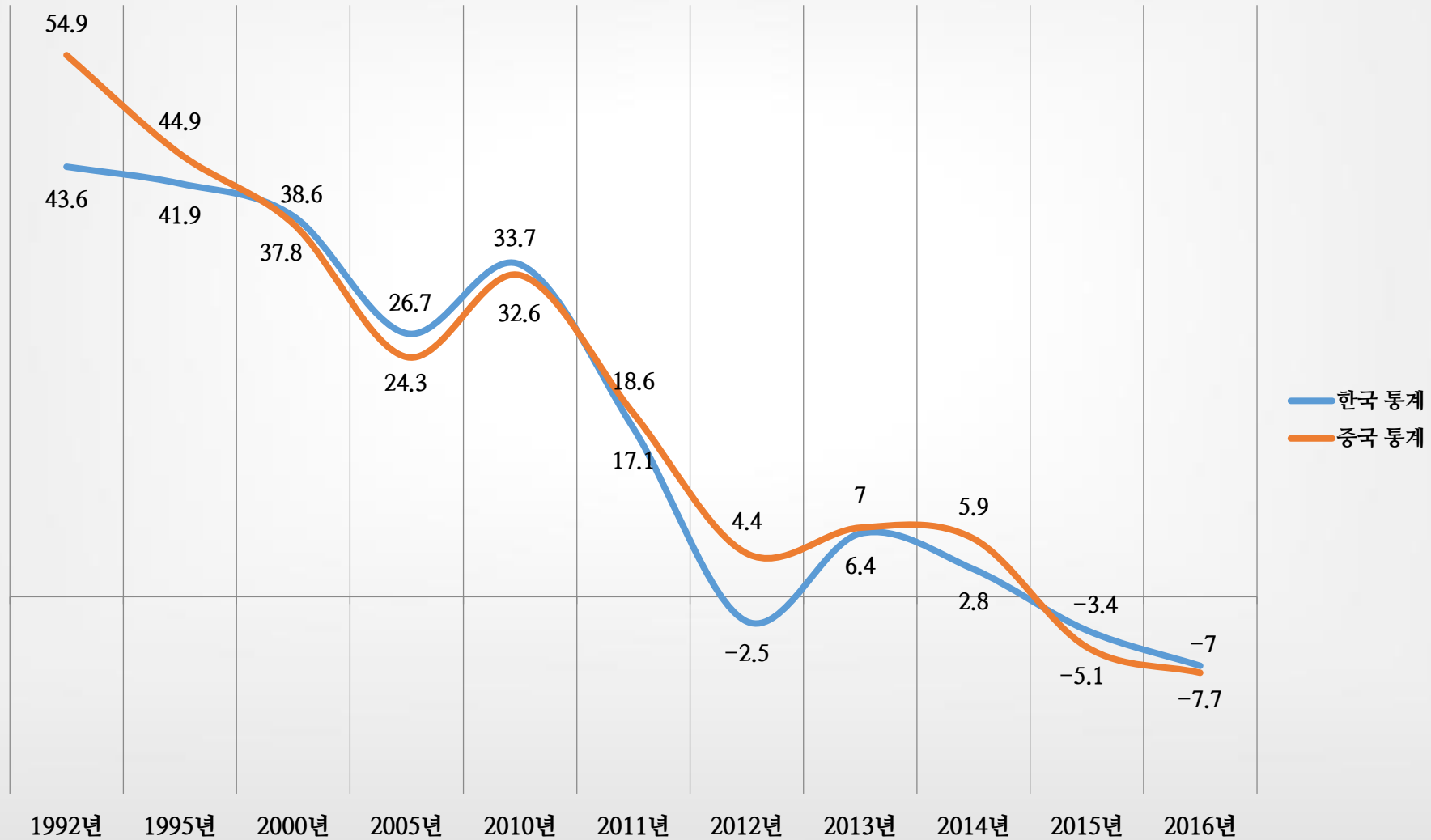
한중경제관계(1)

양국 교역액 및 무역수지 현황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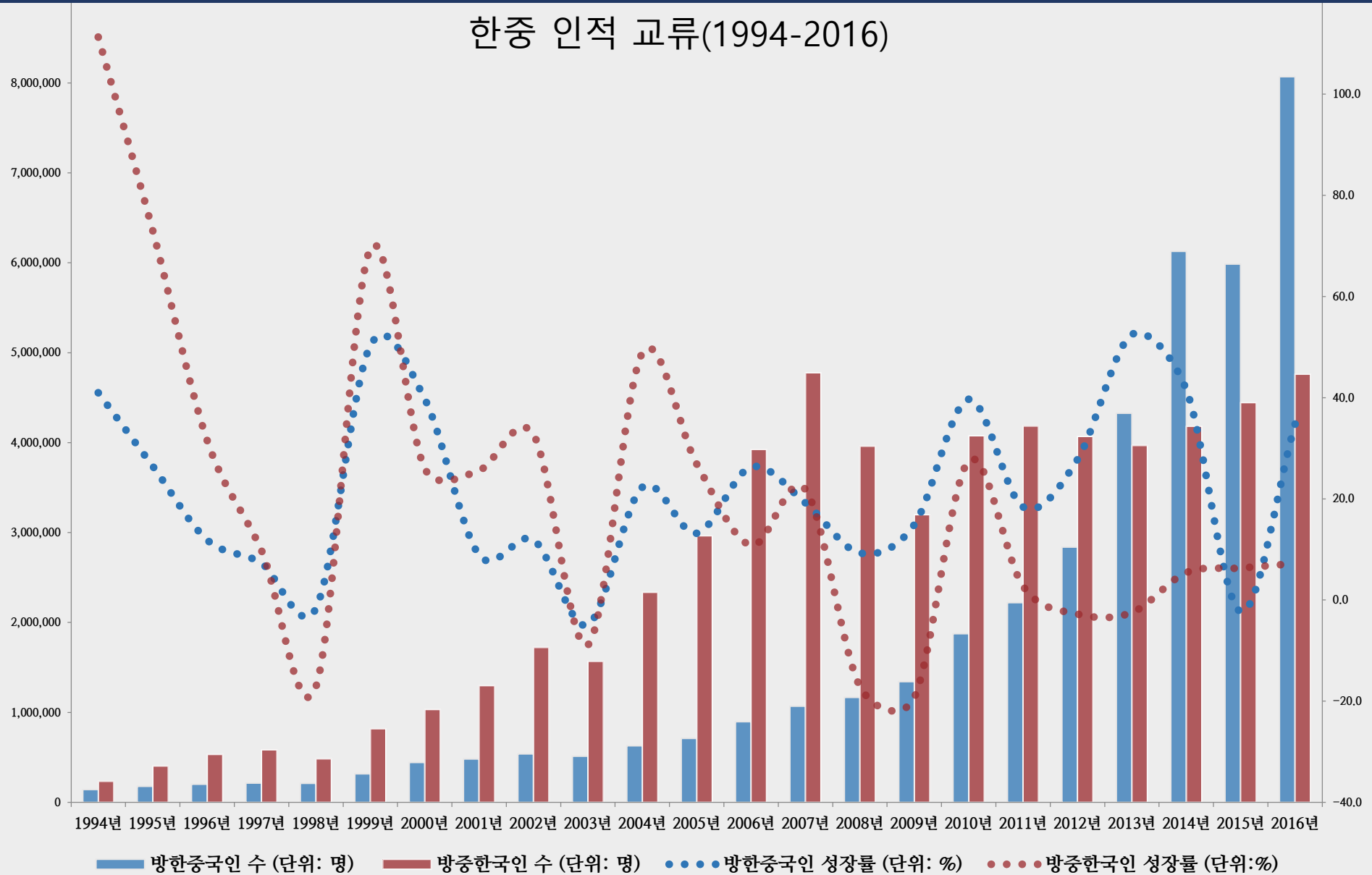
한중경제관계(2)

교역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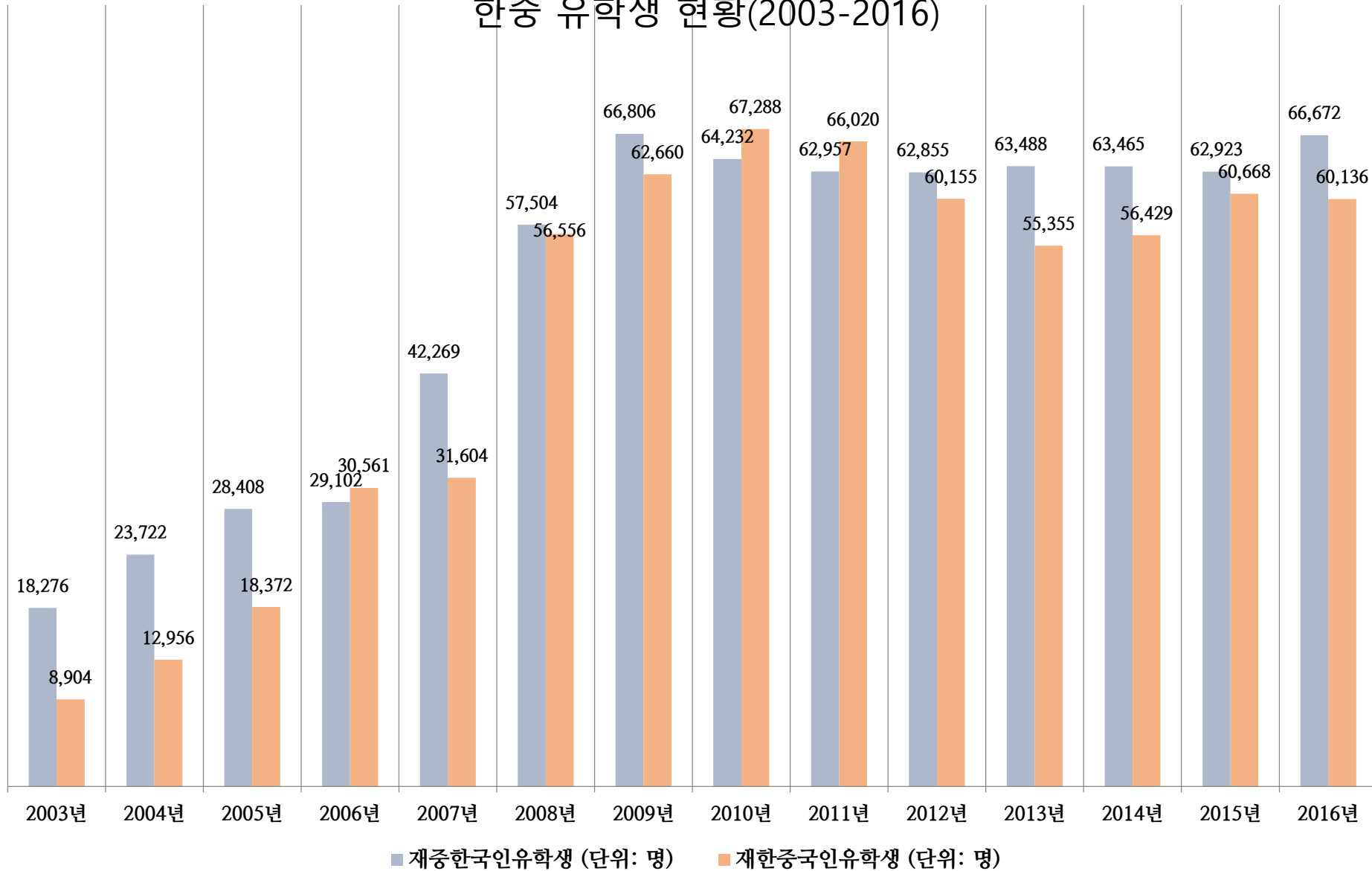
한중 사회관계(1)

한중 인적 교류(1994-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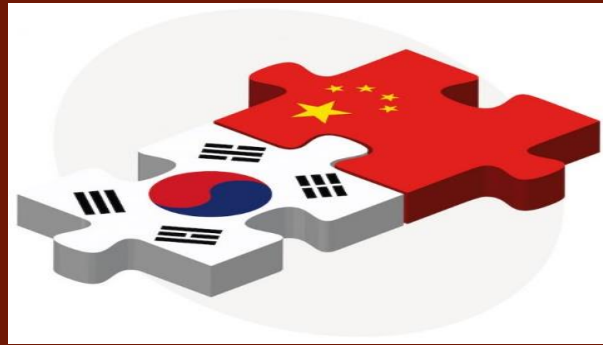
한중 사회관계(2)

한중 유학생 현황(2003-2016)



／ 03 ／

한중관계의 과제



한중관계 쟁점

외생변수, 경성안보(Hard Security) 이슈의 등장



글로벌전략, 지역동맹강화,
북한과 중국견제

불량국가, 압박을 통한 변화,
북한정권의 성격변화

제제강화, 중국역할 압박
제3자 제재

국제협력 강화, 한국주도
평화통일, 급변사태 대비

한미일 협력강화,
미일동맹강화

◀ 한미동맹 ▶

◀ 북한문제 ▶

◀ 북핵문제 ▶

◀ 통일문제 ▶

◀ 일본문제 ▶



양자동맹 현실적 수용과
지역동맹화 반대

북한체제 안정과
진화(Regime Ev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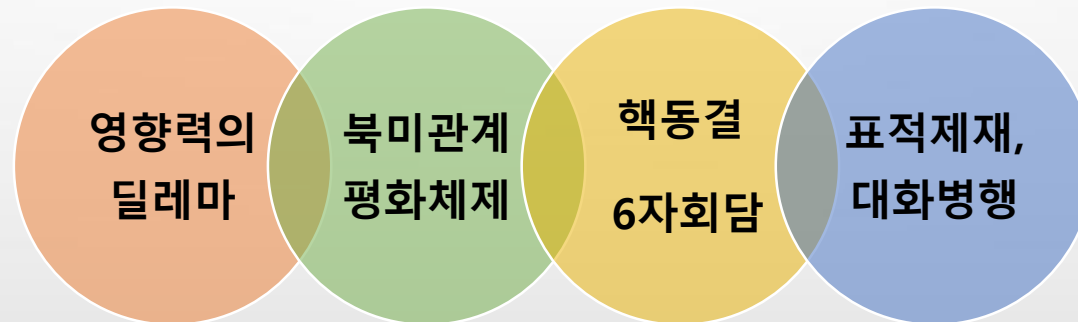
쌍잠정중단(雙暫停)
쌍궤병행(雙軌並行)

자주적-평화적 방식,
급변사태 논의반대, 남북대화

한미일 안보협력 우려,
일본의 팽창주의 반대

중국과 북핵

구분	연도	중국반응	국제사회 제재	북-중 관계
제1차핵실험	2006	제멋대로	유엔안보리 1714	2.13 북미합의
제2차핵실험	2009	단호히 반대	유엔안보리 1874	단기조정 후 정상화
제3차핵실험	2013	단호히 반대	유엔의장성명	조정 후 현상유지
제4차핵실험	2015	단호히 반대	유엔안보리 2270	조정 후 현상유지
제5차핵실험	2016	단호히 반대	유엔안보리 2321	조정 후 현상유지
제6차핵실험	2017	단호히 반대	유엔안보리 2375	조정과 모색중



사드배치와 한국



한국:현실론

- **안보불안**
한반도 비핵화 속도와 북핵-미사일 기술 발전속도의 불일치
- **안보취약성**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동맹방기에 대한 위험관리
- **방어무기**
X-Band 레이더 유효탐지거리, 북쪽으로 지향될 뿐 제3국(중국)용 아님
- **안보주권**
최종적으로는 국가이익에 따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결정
- **한국형 안보(3축체계)**
Kill-chain, 미사일방어체제(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 **북핵과 사드의 연계** : 사드배치는 북핵-미사일과 연계된 사안

사드배치와 중국



중국:반대론

- 무기효용
북한에 대한 '억제'와 북한의 외교행태를 바꾸는 '강압'의 수단이 아님
- 안보취약성
사드탐지범위가 미국의 필요에 의한 변경가능, 요격시스템으로 발전가능
- 안보불균형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중국견제, 미국의 글로벌 공격 전략, 미래무기
- 북핵과 사드의 분리: 북핵협력과 사드배치 반대는 별건
- 한국 정책결정과정의 불투명성에 따른 전략적 불신
- 중국국내정치
시진핑주석의 입언(立言), 감정외교(Sensibility in Diplomacy)

한중관계 개선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17,10.31)

□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콩쉬안유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등과 관련하여 외교당국간의 소통을 진행하였다.

□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하였다. 양측은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국측은 중국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였다. 동시에 **중국측은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였으며**, 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였다. 양측은 양국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측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하였다. 한국측은 그간 한국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하였다

□ 양측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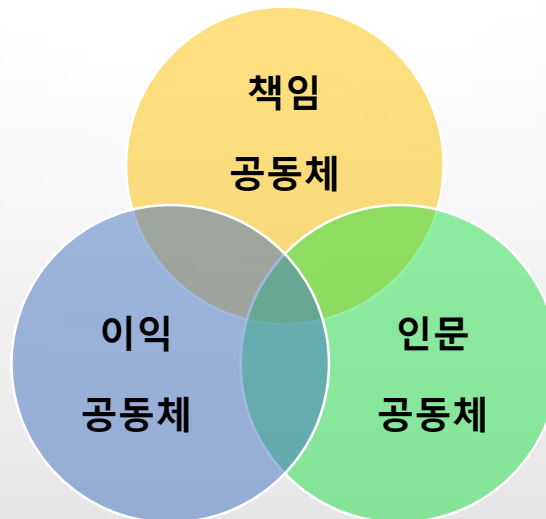
／ 04 ／

미래지향적 한중관계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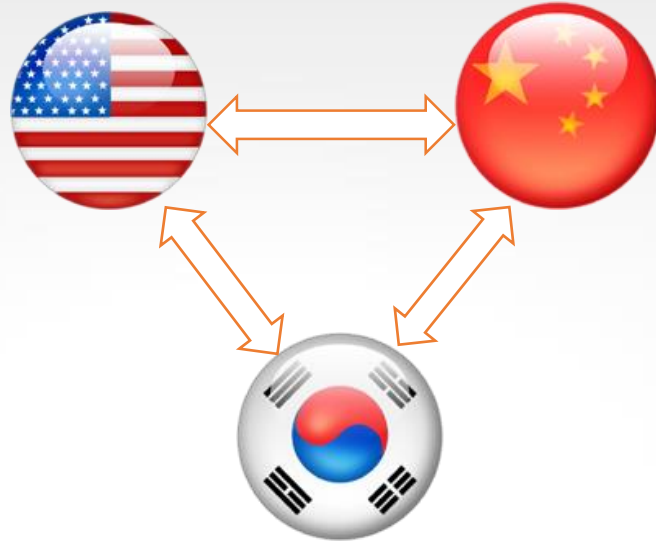


미래 한중관계 준칙

- 공진(Co-evolution): “함께 가야 빨리 갈 수 있고 멀리 갈수 있다”
- 지혜(Wisdom): “고정관념을 깨고 넓은 생각을 넘어서는 용기와 능력”
- 트리플 윈(Triple Wins): “양국간 win-win”을 넘어 지역과 국제사회에 기여
- 복합적 사고와 복합적 처방(Package Deal)
- 경험의 학습: 중일수교 45년의 복기, 사드배치파동



구동존이(求同存異)에서 구동화이(求同化異)로



- 한중관계 뉴노멀(新常態): “대나무가 곧게 자라는 이유, 매듭을 만들기 때문”
-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내실화
- 전략적 소통강화(정부, 연구기관, Track 1.5, 민간교류 등)
- 위기관리와 위기통제(管控)시스템 구축
- 경제협력: 내실화, 고도화, 제3국 공동진출 모색, 신산업 협력
- 사회문화교류: 인식차이, 기대차이의 프레임화 방지, 정치화 방지
- 공공외교의 혁신: 쌍방향형, 체감형, 지속가능형, 미래지향형

북핵출구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Tit-for-Tat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제재에 대한 피로가 있으며,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효과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어렵고 북한의 대화공세시의 국제공조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새로운 창의적 대안 모색도 중요함.

- 최대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압박의 성과 확인 후 대화국면에 진입하는 방안
- 압박과 대화의 병행, 제재의 목적은 대화에 있음. 단, 현재 국면은 제재에 집중
- 한반도 비핵화의 전략적 시야를 잃지 않으면서 핵동결 입구와 한반도 비핵화 출구 사이의 긴 시간 동안 위기관리와 위기통제 시스템 구축
- 국제공조의 수준과 방식 (미중, 한미, 한중, 한미중 등)

한중 전략적 연계



한반도 신경제지도



- 중-몽-러 경제회랑은 한반도와 연계가능
- 동북4성은 한반도와 경제협력구상
- 중몽러(3자)->4자(남한)또는 5자(남북한) 협력으로의 확대
- 신동북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기회의 창” 활용

사드관련 합의(2017.10.31)
APEC 한-중정상회담(2017.11.10-12)
ASEN+3, 동아시아정상회의 계기, 한-중정상회담(2017.11.13-)
'중국 공산당-세계 정당 고위급 회의'(2017.11.30-12.3)
한중정상회담(2017.12월 중순)
2018년(?) 한중일 정상회담
평창동계 올림픽 계기 한중정상회담(2018.2.9-25)

- 강한 압박과 개입, 압박의 성과 확인 후 대화국면.
- 압박과 대화의 병행, 제재의 목적은 대화, 단, 현재는 제재에 집중
- 문제는 국제공조의 방식 (미중, 한미, 한중, 한미중 등)
- 한반도 비핵화의 전략적 시야를 잃지 않으면서 핵동결 입구와 한반도 비핵화 출구의 긴 시간 동안 위기관리와 위기통제 시스템 마련



감사합니다